

|      |                   |     |                            |       |
|------|-------------------|-----|----------------------------|-------|
| 제공일자 | 2012. 7. 13(금)    | 담당자 | 김소연 연구위원                   |       |
| 홍보담당 | 김세환 부장(3775-9051) | 연락처 | 3775-9033<br>010-3465-2023 | 총 2 매 |

## 제목: 풍수해보험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제

### 보험료 지원 확대, 재난위험지도 작성, 장기계약상품 개발, 반복 손실발생 가입집단 관리 필요

보험연구원(원장 김대식)의 김소연 연구위원은 『 풍수해보험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제 』란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최근 급변하는 기후변화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대형 자연재해의 발생빈도와 피해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우리나라는 태풍과 호우로 인한 피해가 매년 여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을 2006년 일부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도입, 2008년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여 이제 4년의 기간이 지나고 있다.

풍수해보험이 아직은 초기단계에 있지만 국가 재난시스템의 유기적 일부로서의 역할이 크므로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를 시키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소방방재청은 풍수해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피해보상 범위는 확대하고 국민의 부담은 줄이는 개선안을 시행했다.

이러한 정부의 개선안 시행과 더불어, 풍수해보험의 활성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 지원예산 확대, 재난위험지도의 빠른 완성 및 주기적 업데이트, 장기계약상품(multi-year policy) 개발, 반복 손실발생 가입집단의 관리 등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국가 재난복구지원금 제도 등의 무조건적 지원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보험료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풍수해보험의 정부 보험료 지원을 통하여 보험가입자들은 아주 적은 초기 비용으로 미래의 사고를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음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둘째**, 재난위험지도는 풍수해보험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 재난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므로 빠른 완성과 더불어 주기적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 한다. 풍수해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체 가입률도 중요하지만, 정책보험으로써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 가입했는지를 평가해 보는 것도 중요한데, 이를 가능케 해 주는 것도 재난위험지도이다.

**셋째**, 풍수해보험은 사고가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리스크의 분산이 어려운 만큼, 계약기간을 5년, 10년 등으로 늘려 보험의 재해리스크를 시차적으로 분산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수거절을 할 수 없는 정책보험의 특성상, 소수의 최상위 위험집단\*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비중이 전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들 집단에 대한 관리를 위해 피해 예방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자체 차원에서 강력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 미국 홍수보험의 경우, 10년 동안 \$1,000 이상의 보험금이 2회 이상 지급된 부동산을 '반복적 손실발생 부동산(repetitive loss properties)'으로 분류하는데, 이들 부동산은 전체 가입부동산의 1%에 불과하지만, 그들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전체 지급보험금의 25~30%수준을 차지함.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iri.or.kr>